



빛의사람들

2018.1.

270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발행 : 김석원 파트리치오 신부

주소 : 02862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빛의사람들)

전화 : 02)921-5093 FAX : 02)921-7847 / E-Mail : kyodo@catholic.or.kr

홈페이지 : www.catholic-correction.co.kr



2018년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민수 6.27).



“지극히 낮은 곳에 서는 하느님께 영광, 광야에서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남부구치소 김○○ 예비신자 자매의 그림

우리들의 활동 이야기



2017년 교정시설 자원봉사자 교육

지난 11월 13(월) ~ 17일(금)까지 총 5일간 2017년도 교정시설 자원봉사자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교육은 교정시설에서 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교정시설 현장에 대한 이해 및 봉사자의 자세 등 봉사에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청주여자교도소를 참관하여 수용자들의 교정시설에서의 생활상과 실태를 몸소 느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교육을 수료한 자매님들께서는 이제 교정시설로 나가 갇힌 이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보호관찰소 업무협약 체결

11월 20일(월) (사)사회교정사목위원회와 서울보호관찰소 그리고 (사)아시아교정포럼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인문학 교양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 상호간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앞으로의 계획과 방향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후원회원 월례미사

12월 4일(월)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교정사목 2017년 마지막 월례미사가 교정사목 신부님들과 강봉묵 마티아 소년원 담당 신부님의 공동 집전으로 봉헌되었습니다. 이날 주례의 김석원 위원장 신부님께서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주신 성모님을 본받아 세상에 예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파하며, 부족한 점과 결점들을 대림시기에 고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또 올해도 교정사목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또 12월에 축일을 맞이하시는 이상원 부위원장 신부님을 위해 대표 봉사자들의 축가와 꽃다발 증정식도 있었습니다. 이상원 신부님께서는 소외된 이웃, 갇힌 이들을 더욱 사랑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잠실3동 본당 후원회원 모집미사

12월 9일(토)~10일(일) 잠실3동 본당에서 후원회원 모집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교정사목 신부님들께서는 구치소와 교도소에 갇힌 이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우리와 같은 이웃, 형제자매로 바라봐 주고, 출소자, 해밀(피해자)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실3동 주임 신부님과 보좌 신부님 그리고 본당의 교우들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셨으며, 100명의 형제자매들께서 새로운 후원 가족이 되어 주셨습니다. 잠실3동 본당 가족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석원 신부의 영성길잡이

가난한 이에 대한 애덕의 실천

어떤 신자가 미사에 참례하러 가던 중에 아주 초라한 행색의 거지를 만났습니다.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들어 적선하려던 신자는 미사 시간에 늦을 것 같아 그냥 성당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자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지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갔지만 이미 그 거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지가 어디로 갔는지 아파트 경비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경비원은 “사모님, 여기는 부자 동네라 거지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모님이 잘못 보신 거겠지요. 여기에는 거지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거지가 예수님이었다는 생각이든 신자는 자신이 깨어 있지 못해서 예수님을 무심히 지나쳤다고 잘못을 뉘우쳤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예를 파우스티나 성녀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9월 말경, 초췌한 모습의 젊은 청년이 수녀원 문 앞에 나타났다. 신발도 신지 않고 모자도 쓰지 않았으며, 옷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다.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그는 먹을 것을 달라고 청했다. 나는 주방에 가서 음식을 찾았으나 음식이 없었다. 한참을 뒤져 찾아낸 수프를 데운 후 빵 부스러기를 넣어 그 젊은이에게 주었다. 얼마 후 그 청년이 자신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고 밝혔고, 그가 누구인지 깨닫는 순간 그는 곧 사라졌다.

이 일을 되새기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내 딸아, 이 문을 지나면서 내게 축복을 구하던 가난한 사람들의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렸다. 네가 순명의 범위 내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기뻐다. 그리고 그것은 네 자비의 결실을 맛보기 위해 내가 내 어좌에서 내려온 이유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라고 하시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종교이고, 그리스도는 이론적인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마태 8,20).』

그리고 예수님만큼 가난하신 분도 없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이셨지만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멸시한다면 결국 예수님을 내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더 데레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했기에 주님이 큰 수도회를 허락하셨고, 꽃동네의 오웅진 신부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했기에 주님의 능력을 보여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불쌍한 여인이 찾아와 먹을 것을 구걸했습니다. 성인이 재정 담당 신부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아무것도 없다며 값나가는 것이라곤 신약 성경밖에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당시 성경은 값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성인은 재정 담당 신부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책을 이 여인에게 주시오. 우리가 성경에서 행하도록 배우고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성경을 봉독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성체와 가난한 이, 또 가난한 이와 성체를 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배고픔을 채워 주셨으니 우리도 가난한 이에 대한 사랑과 봉사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 됩니다. 마더 데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빵의 현상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직 중에 그분을 살과 피의 형상으로 만납니다. 모두 같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이런 강론을 했습니다.

『성당을 장식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소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에게 소홀한 사람은 꺼지지 않는 지옥 불속에 떨어지게 되고, 악마들과 함께 고초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장식할 때 고통 당하는 형제를 못 본 척하지 마십시오. 그는 돌로 된 그 어떤 성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성전입니다.』



2017년 12월 교정시설을 세르게 소식



2017년 12월 매서운 날씨에도 아기 예수님이 오시길 기대하는 시기 교정시설에서 있었던 기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12월 5일 첫째주 화요일에는 서울구치소 여사와 남부교도소 공장에서 각각 김석원 파트리치오 위원장 신부님과 현대일 루도비코 부위원장 신부님의 집전으로 미사와 세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남부교도소 공장에서 2명, 서울구치소 여사에서 2명의 형제자매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6일에는 서울구치소 남사에서 현대일 신부님께서 집전하는 미사 안에서 7명의 형제가 하느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에는 남부구치소 남사에서 김석원 신부님의 집전으로 2명, 같은 시간 남부구치소 여사에서 이상원 사도요한 부위원장 신부님의 집전으로 1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1일에는 동부구치소 남사에서 김석원 신부님의 집전으로 7명, 여사에서는 이상원 신부님의 집전으로 1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2월에 22명의 형제자매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정사목의 세 신부님들께서는 세례를 받은 형제자매를 축하해 주시며, 세례는 신앙의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끊임없이 하느님과 성모님께 기도와 사랑을 바치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이런 교정시설에서의 세례식은 교정사목을 하며 얻을 수 있는 기쁜 결실 중에 하나이며, 담장 안에서도 복음의 씨앗이 충분히 자라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교정시설에 있는 이들을 좋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를 반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죄를 반성하는 것은 아닐테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이들의 고통을 헤아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또 많은 이가 하느님을 만나고 서서히 알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 진실 되게 바라보고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루카 15,7).

2018년에도 교정사목은 1명의 회개하는 죄인을 위해 교정시설을 찾을 것이고 담장 안에서 하느님의 복음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사랑의 첫걸음

글_사회교정사목위원회 홍보부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이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급하게 쫓아나와 버스를 정차 시킵니다.



의식이 없고 맥박도 약하게 뛰며 위급한 상황



할머니의 숨소리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파출소 앞으로 버스가 출발합니다. 그때 경찰 한 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는 천천히 출발하는 버스를 따라갑니다. 그러더니 급히 버스를 정차시킵니다. 버스를 타고 집에 가려던 것일까요? 아니면 지명 수배자를 발견이라도 한 것일까요? 경찰관은 정차시킨 버스를 탑승하고 창가에 기대어 주무시는 할머니께로 향합니다. 놀랍게도 할머니께서는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잃고 위험한 상태에 빠지신 것이었습니다. 경찰관은 신속하게 119에 신고를 하고 통화를 하면서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조대가 도착하고 할머니도 의식을 회복하시고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2016년 대구 달성경찰서 구지파출소 앞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할머니의 생명을 구한 경찰관은 당시 임용된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은 전종덕 순경이었습니다. 마치 의자에 기대어 주무시는 듯한 할머니를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이나 기사도 눈치를 채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파출소에 있던 전 순경이 발견했던 것일까요? 답은 이웃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큰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은 도움을 청할 힘조차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심 있게 지켜보지 못한다면 그냥 모르고 지나쳐버리게 됩니다. 행동할 용기와 의지가 충분하더라도 결국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셨으며 특히 소외된 이들을 사랑하셨고, 우리에게도 이들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셨습니다. 즉, 관심은 타인을 향한 단순한 호기심이나 소위 말하는 오지랖이 아니라 아기가 첫걸음을 떼는 순간과 같이 사랑의 시작이며 사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밑바탕입니다.

연말연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여기저기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 시기는 다른 이웃들에게 관심이 커지는 시기라서 주변에서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상하게도 주변에 대한 관심이 무뎌지고 심지어 바로 옆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 문제가 되기까지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항상 이웃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용자들과 그들의 가족들, 범죄로 피해를 받은 이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관심 덕분입니다. 다시금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2017년 교정시설 자원봉사자 교육 후기



2017년 11월 13일 두근거리는 설렘으로 교정시설 자원봉사자 교육 참가를 위해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참여하셨던 모든 분이 설렘과 감사의 마음으로 교육에 임하셨겠지만, 저는 유난히 더한 간절함이 있었기에 감사, 설렘의 교차 속에서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기적 같은 일주일의 휴가가 주어졌습니다.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꼭 받고 싶었던 교육이기에 퇴사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주일의 휴가를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시간은 정말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눈물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은 총 5일로 진행되었습니다. 짧았지만 알차게 짜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날 강의는 교정사목 위원장이신 김석원 신부님의 인사말과 위원회 활동 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어졌던 성체신심에 대한 강의는 제가 천주교 신자라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무지가 드러난 듯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신부님의 강의는 또 한 번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강의는 강군오 강릉교도소장님의 '교정현장의 이해'에서 재범률의 수치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출소 기간 내의 재교육과 출소 후 교육이 미흡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건 그들을 바라보는 낙인이라는 차가운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TV 속에서 볼 수 있었던 이수정 교수님의 '범죄 심리에 대한 이해'는 갑작스럽게 저를 학구열로 불태우게 했고 그때 이후 아직도 공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맛갈 난 경상도 사투리와 강의 내내 유머로 경청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이끄셨던 에니어그램 연구소 윤미숙 소장님의 강의는 내 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꺼내놓는 듯한 묘한 감정을 일게 해주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청주여자교도소를 참관하였습니다. 교도소에서 진행되는 재교육프로그램은 출소 후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과 비교적 깨끗한 시설에 이곳에서 인권은 살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참관의 마지막쯤 너무도 비좁은 수용자들의 방을 보며 놀라움과 서글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강의의 마지막인 넷째 날에는 이백철 교수님의 '교정사목과 종교인의 사명', 이희경 교수님의 '심리학과 더불어 교정을 생각하다.'와 다섯째 날 오전에는 현재 교정현장에서 봉사하시는 선배님들의 활동 사례와 실제상황을 듣는 것으로 5일 동안 진행 된 교육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너무도 짧았던 강의 기간이라 아쉬움이 컸습니다. 빠른 시간 내 심화교육을 듣고 싶은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곧 현실이 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오후의 이어진 미사는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곳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웠지만, 필요하시기에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V속 각종 시상식의 수상자들은 어김없이 울먹이며 감동에 벅찬 시간들을 그 동안 감사했던 사람들과 같이 나누려 이름을 부릅니다. 저 역시 그런 기분이 들어 교육 내내 떠오르는 분들을 메모지에 적어보았습니다. 오래되지 않은 저의 신앙생활에 깨달음을 주신 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는 말을 새삼 느껴봅니다. 어느 날 우연히 YouTube를 통해 교정사목을 처음 알게 해주시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신 김성은 베드로 신부님, 그 가치 있는 삶 속에 감히 들어가 행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영우 토마스 신부님, 고봉중고등학교에 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곽세실리아 자매님, 제

게 교육의 기회를 주신 강봉묵 신부님, 교육 내내 친절한 네비게이션이셨던 백슬아 유스티나 자매님, 청주여자교도소까지 동행해주시며 안전 운전해주셨던 현대일 신부님, 또한 그밖에 많은 분께 감사합니다. 내게 자주 기적 같은 삶을 내주시고 소풍 같은 가슴 설레는 날을 보너스로 주시고 늘 지켜주시는 저의 절대자 저의 하느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축복의 한 조각을 또 맞추게 선물해주심에 감사합니다.

Fiat Voluntas Tua

- 태현희 크리스티나 -

올해는 내게 있어 참 의미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연초에 예순한 번째 생일 환갑을 맞이했고, 6월 30일자로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이력서를 작성하다 보니 봉사 경력을 기재하는 란에 기록할 것이 없어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교정시설 자원봉사자 교육이 있다는 말은 들었으나, 직장을 다니면서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봉사를 열심히 하는 지인 아가페 자매님으로부터 11월에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 교정시설 자원봉사자 교육이 있을 예정이라는 정보를 들었고, 바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크게 이슈가 됐던 사건 후의 뒷 얘기도 읽어보고, 그러다 혹여 교육 정원이 초과 돼서 기회를 놓치게 될까 봐 미리 접수를 해 두었습니다.

여러 강사님들의 교육을 받다 보니 한 주가 언제 갔나 싶게 빨리 지나갔고, 생전 처음으로 가 본 청주여자교도소 방문은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담장 안 운동장에서 가벼운 운동과 산책을 하는 분들, 형형색색의 많은 꽃으로 가득한 교실에서 플로리스트를 공부하는 분들은 꽃처럼 예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가 들려 방송 소리인가 했는데 교도관의 안내를 따라 찾아간 곳은 합창 경연대회를 앞두고, 화음을 맞추는 강당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감동을 줬던 영화 ‘하모니’를 연상하게 했습니다. 현장감 있는 교도관님 강의도 교정사목의 교수님 강의도 또 재소자들이 출소 후 사회에 적응을 위한 마땅한 시설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던 범죄심리학 교수님의 말씀에도 크게 공감되었습니다. 아직 교정시설 봉사에 대해 경험을 하지 못해 그곳에서의 느낌은 알 수 없으나, 정신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인 그들을 사랑하고, 보듬는 마음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 조정남 데레사 -



〈2017년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자원봉사자 교육 수료자 자매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미리암 수녀 / 자비의 메르세다리아스 수녀회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이사 43,1).
 “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사 49,16).

하느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자신도 사랑할 수 있어야 이웃도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자기 자신을 진정 사랑하나요? 진정한 자기 사랑을 무엇일까요? 자신을 사랑하는 법에 대한 리스트를 함께 읽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1. 타인을 사랑하기 전에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2. 자신의 실수만 바라보면 남들도 자신의 실수만 보게 된다.
3. 자신을 한심하게 여길 때 고통만 깊어질 뿐이다.
4.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
5. “난 이 세상의 하나 밖에 없는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야!” 라고 외쳐야 한다.
6. 타인의 복사판이 되지 말고 자신만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7. 자신의 장단점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다.
8.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9.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사랑할 수 없다.
10. 실수를 거듭해도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11. 자신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고 행복이 결정된다.
12.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나를 끌어 올리는가, 끌어 내리는가? 열등감을 꾸며내는 부정적인 자의식은 자신을 비참하게 끌어 내리는 악순환의 고리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13. 아주 특별한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자신은 더 없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이다.
14.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수록 자신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그 사람의 울림은 타인을 향해 퍼져 나간다.
15. 사람들은 진정한 자기 사랑 없이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남들에게 매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지나치게 남들을 의식한다. 남들을 의식하면 할수록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살기가 그 만큼 어려워진다. 자기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 행복한 삶은 진정한 사랑에서 비록 되기 때문이다.
16. 행복은 사랑에 달려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이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17.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삶을 통제해 주기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 부단히 애쓴다.
18. 타인을 의지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은 실망뿐이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하도록 창조된 주체적 존재이다.
19.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은 타인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사랑의 삶이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마태 22,37-39). ▮



불을 밝힌 등불

안녕하십니까?

낮선 곳에서 소식이 반갑지 않음을 알면서도 실례를 무릅쓰고 용기 내어 글 올립니다.

이곳은 자유가 통제당하는 교도소입니다.

법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면 오게 되는 공간이다 보니 더욱더 거리낌이 드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많은 죄를 누우치고 주님을 만나기를 노력하다 보니 앞날을 생각하게 되고 생각과 행동들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신부님께 글을 올리게 되는 이유는 이제 막 믿음이란 단어를 마음에 품고 신앙을 시작하며 궁금한 것도 생기고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것들이 하나 하나 생겨나는 과정 속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도움과 자문을 그리고 조언을 구하고자 어렵게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방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동안 주님을 모르고 지냈던 시간들이 아까워 좀 더 이곳에서 시간적 여유 있을 때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욕심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만들고 또 유지하며 주님께 다가가야 하는 건지 신부님께 바른 인도를 배워 나가고 싶습니다. 이곳에선 지식과 지혜를 채울 수 있는 상황들이 관계가 있기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그냥 제자리걸음 믿음 생활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길이든 주님과 가까이할 수 있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니 부디 외면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았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시간들이 너무도 길기에 욕심이지만 지름길을 선택해보려 합니다. 하지만 체계 없이 서두르기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표와 계획이 뚜렷하기에 조금의 도움만 주신다면 성심을 다해 차근차근 배워 나가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욕심이 깊어지다 보니 염치없이 글을 올려 도움을 구하게 되는 제 모습 부디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법 기온이 떨어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쳐 나시길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2017년 11월 21일

박○○ 드림

담장 안에서 하느님을 알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박○○ 형제의 신앙의 불꽃이 언제까지나 계속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새해엔 이런 사람이

평범하지만 가슴엔 별을 지닌 따뜻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신뢰와 용기로써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월의 보름달만큼만 환하고 둥근 마음
나날이 새로 지어 먹으며 밝고 맑게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의 삶에 새해라는 또 하나의 문을 열어 주신 주님, 이 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로 보며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 튀지 않는 빛깔로 누구에게나 친구로 다가서는 이웃,
그러면서도 말보다는 행동이 뜨거운 진실로 앞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랜 기다림과 아픔의 열매인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화해와 용서를 먼저 실천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새롭게 이어지는 고마움이 기도가 되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아 지루함을 모르는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욕심을 버리는 연습 자기 뜻을 포기하는 연습을 통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오늘은 지상에 충실히 살되 내일은 훌연히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순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 이해인 클라우디아 수녀 -

마음
달

(1)

양상우
도로테아



후원알림마당

어서 오세요

12월에는 잠실3동 본당의 교우 100명, 최형길, 김용범, 미카엘, 박병초, 말가리다, 최남선, 스테파노, 최영희, 엘리사벳, 임채현, 레오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내 말씀 드립니다

- 후원정보 변경 시 바로 연락주세요.
-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변경하고 싶을 때
- 후원금액을 변경하고 싶을 때
-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 되었을 때
- * 반송우편물로 낭비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CMS 및 자동이체 후원을 권장합니다.

본 위원회는 금융결제원과 협의하여 전화신청만 하시면 은행에 가시는 번거로움 없이 자동 결제되는 후원금 자동 납부 방식인 CMS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로용지 제작 및 우편발송 비용을 절약할 수 있사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빛의사람들’ 소식지를 이메일 발송해드립니다.

소식지를 우편으로 받아보기 어려우시거나 우편비용의 절감을 원하시는 후원회원님께 이메일 발송을 해드리오니,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www.catholic-correction.co.kr

후원사업부: 02)921-5094

2017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1.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http://www.yesone.go.kr>)에서 확인 및 출력
 2.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 (1월 초 일괄발송)
- 단, 기부금영수증은 본 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후원회원에게 한하여 발급 가능 하오니 연말정산 기간의 혼동을 줄이기 위하여 미리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한 사랑을 나누어주신 후원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후원사업부: 02)921-5094

절 취 선

계좌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① 수집 및 이용목적: 자동이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② 수집항목: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③ 보유 및 이용기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④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신청 절차에 의해 반드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셔야 자동이체 신청가능 수집을 원치 않으실 경우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본인은 자동이체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거래금융기관명, 영업점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상기 거래금융 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관과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2018년 2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저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 일시: 2월 5일 월요일 오전 10:30 * 장소: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2월 축일을 맞으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오니 축일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해밀(피해자)가족과 출소자를 위한 센터미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교정센터 성당 - 「1월 13일(토) 오후 7시」

* 맛있는 저녁식사, 그리고 가족 같은 분위기로 봉헌하는 미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수용자 가족모임을 하고자 합니다.(무지개 모임)

가족, 친지, 형제들의 수감으로 인해서 정신적, 심리적, 신앙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만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 1회 센터미사를 하고 있으니 참석바랍니다.

● 행사 알림

- 1월 13일(토) 센터미사 / 교정사목센터 성당
- 1월 13일(토) 해밀, 가온길, 무지개 모임 / 교정사목센터
- 1월 15일(월) 후원회원 월례미사 / 가톨릭회관 3층 강당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S C 109-10-276339

우리 1005-700-335190
신한 100-019-558299

국민 375301-04-003539
하나 209-910017-31705

후원신청서

후원자 성명	세례명	영명축일
주소		
연락처		
소식지발송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원치않음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5,000원 <input type="checkbox"/> 10,000원 <input type="checkbox"/> 2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금융기관명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5일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형식의 평생계좌는 [모계좌번호]를 적어주세요.	
예금주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영수증 원하시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기입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너희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마태 25,36)